

인론이 주목한 이달의 책

‘영웅의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세 사람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세계일보>가 《영웅만들기》리뷰에서 인용한 크리스티앙 아말비의 언급처럼, 지난달 신문 출판·문화면 역시 인생 무대를 종횡한 변화무쌍의 기억을 담은 서물書物로 빼곡했다.

1월 하순 이래 2월에 접어들기까지 일간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붉은 중국의 공포 파문궁>,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 <일곱 빛깔의 위안>,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시대적 가치와 형상을 핵심 의제로 삼은 저널리즘의 속성 때문일까. 《영웅만들기》와 《지식인의 죄와 벌》은 특히 대부분의 신문들이 크게 지면을 할애,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한 책이다.

‘영웅을 이야기하는 까닭’을 읽고,
문제 작가들의
브랜드 변신에 관심

시대 형상 담은 《영웅만들기》(지식인의 죄와 벌)에 ‘시선 집중’ 사학자 6명이 나폴레옹을 비롯한 5명의 인물에 대해 쓴 《영웅만들기》에 대해, <동아일보>는 저자 중 한 사람인 고故 강옥초 교수(인하대 사학과)가 남긴, “영웅은 미디어(매체)”라는 말로 책의 키워드를 대신했다. 강 교수가 말한 바, “근대 국민국가 이후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이들을 민족으로 묶어주는 상상의 원천이 됐고, 민족 정체성이라는 숨은 신이 되어 구성원의 내면을 조종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곤 “‘영웅 만들기’가 필요했던 사회적 맥락과 곡절, 거기에 힘을 보탠 갖가지 그림 소설 영화 등 문화적 텍스트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 책의 진정한 가치”라고 평했다.

<세계일보>는 새삼 ‘과거와 다른 현재에도 우리가 영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서평자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란 본문 구절에 주목하는 한편, “영웅의 초상화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자화상의 변천”이라고 한 대목에 밑줄 그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메커니즘, 국민 정체성 형성에 영웅이 간여한 바를 밝혔다”고 책의 가치를 되새겼다.

‘지성의 반역, 프랑스는 단호했다’-. 1월 29일자 <한겨레> ‘책과 사람’은 확신이 담긴 듯한 타이틀을 내걸고 장문에 걸쳐 《지식인의 죄와 벌》을 평했다. 신문은 “2차대전 말기 파리 해방 직후 ‘프랑스 대숙청’은 지식인의 행동과 책임의 막중한 관계를 서슬 퍼런 목소리로 증언한 가장 뜨거운 역사의 현장”임을 상기하며 “지은이는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단죄 과정을 선명하게 돈을새김하면서, 우리의 친일파 청산 좌절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역자 단죄의 엄정함을 강조한, 비슷한 주제의 책들에 비해 “이는 숙청 과정을 역사적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제4공화국이 기슈타포의 장화를 신어서는 안 된다”며 숙청을 비판한 모리 아크에 맞서, “인간의 정의가 너무나 불완전하다고 해도, 인간의 정의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임을 역설한 까뮈를 대비시키기도 했다.

성석제·서영은·은희경의 ‘의미 캐기’에 골몰
성석제, 서영은, 은희경-. 지난달 주요 일간지들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이들 3인의 퍼스널리티와 작품세계를 가늠하느라 필력을 아끼지 않았다. 성석제의 소설집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 서영은의 산문집 《일곱 빛깔의 위안》, 은희경의 장편소설

〈언론이 주목한 책〉

- 01 《영웅만들기》
- 02 《붉은 중국의 공포 파문공》
- 03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
- 04 《개처럼 일하라》
- 05 《일곱 빛깔의 위안》
- 06 《이미 시작된 20년후》
- 07 《비밀과 거짓말》
- 08 《내 인생에 타협은 없다》
- 09 《지식인의 죄와 벌》
- 10 《사막에서 사는 법》
- 11 《그림속의 음식, 음식속의 역사》
- 12 《황금광 시대》
- 13 《눈을 해매는 거대한 수레》
- 14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다》
- 15 《자연의 선택, 지나 사피엔스》
- 16 《성의 미학》
- 17 《서구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
- 18 《푸른혼》
- 19 《폭군들》
- 20 《블루아메리카를 찾아서》
- 21 《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
- 22 《새》
- 23 《동물과의 대화》
- 24 《공포의 문화》
- 25 《코드브레이크 암호 해독의 역사》
- 26 《피타고라스 구슬작전》
- 27 《내 아이를 지키려면 TV를 꺼라》
- 28 《이미지의 문화사》
- 29 《중국인, 그들의 마음을 읽다》
- 30 《신화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신화》
- 31 《판타스틱 사이언스》
- 32 《교황의 죄》
- 33 《격동의 100년 중국》
- 34 《터부, 사람이 해서는 안될 거의 모든 것》
- 35 《진국과 부국》
- 36 《코스모스》
- 37 《발해제국사》

*이상 3개 일간지 이상이 별도 서평으로 다룸

《비밀과 거짓말》은 작가와 작품의 격조나 품질에 있어서 서지정보 이상의 뉴스가치로 각 신문의 구미를 당기게 했다.

〈경향신문〉은 아예 성석제를 일컬어 “소설 시장에서 그의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라고 단언했다. 〈동아일보〉는 한술 더떠 “홍겨운 입심과 날렵한 필치로 ‘성석제 식 문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탁월한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들 신문은 평론가 정홍수 씨의 말을 빌어 “풍성한 이야기, 웃음의 모든 차원을 자유자재로 열어놓는 말의 부림, 생동하는 입말의 향연 등 수다스럽기까지한 게 그의 작품”(〈경향신문〉)이라거나, “모처럼 소설 읽다 낯밤 새우며 웃음이 터져 나올 정도의 재미를 느꼈다”(〈동아일보〉)는 소설가 박완서 씨의 독후감을 인용하는 식으로 호감을 표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번 소설 집은 기왕의 활력 대신 진지함을 택했고, 삶의 해학 대신 페이스를 택했다”며 “그의 소설이 슬피졌다거나 할 만큼 ‘촉촉한 물기’ 같은 게 느껴진다”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서영은이나 은희경에 대한 언론의 호의 역시 그 못지않다. 〈국민일보〉는 “산문집의 진가는 고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그릇에 담긴 자기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는, ‘존재의 시원’을 향한 투명한 시선에 있다”며 《일곱 빛깔의 위안》과 서영은의 진가를 인정했다. 또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부군인 김동리 선생과 지난 1995년 사별 이후 방황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대면하는 과정을 진솔한 문체로 털어놓았다”면서 “상처투성이 삶에서 잘게 부서어져 길어올려진 일곱 빛깔로 자신보다 오히려 보편적인 인생 자체를 위무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같이 찢겨진 작가 개인의 상처를 위무하기도 했다.

‘이게 은희경 소설 맞아?’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등 거의 모든 신문들은 은희경의 ‘변신’에 그처럼 놀라워했다. 그래서 앞다퉈 은희경을 만나 그 답지않은 장편소설 《비밀과 거짓말》의 의미를 캐는 데 골몰했다. 〈조선일보〉와 만난 은희경은 “그동안 ‘나’ 자신을 숨기고 돌려 말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이번 작품에는 내 육성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많다”며 “사십을 넘긴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비로소 유치한 장식이 잔뜩 달린

체로 빛이 바랜, 청춘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놓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은희경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체 어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하고 자못 궁금해 못견디겠다는 투였다. 《새의 날개》 이후 10년, 그리고 《마이너 리그》 이후 4년 만에 선보인 그의 작품에 대해 “고개를 모로 비틀고, 기성세대를 한껏 조롱하던 조소편 어조, 느닷없는 사건들로 상식을 전복하는 의외성. 그런 ‘은희경의 것들’이 이번엔 보이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은희경 자신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새의 선물》이 감쪽한 문제제기 정도였다면 이번 소설은 질문이 좀더 깊어지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도 치밀하고 두터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곤 “이번 소설을 쓰는 동안 청춘기의 치열한 부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력한 회기도 아닌, 어떤 고요함에 이른 것 같다는 느낌”이라며 “고향과 성장기에 관한 얘기는 이걸로 끝”이라고 선언했다.

기존 관념 교정환 서물(書物) 《그림속·》 《황금광 시대》 대서특필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와 《황금광 시대》 역시 일간지들이 일제히 대서특필한 책들이다. 조선후기와 일제치하를 각기 배경으로 한 이들 두 권의 책은 시대적 의미를 천착하는 언론 본연의 취향과도 맞아떨어진 셈이다. 〈한겨레〉는 민속사학자 주영하 교수의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에 대해 “풍속화 속 소품으로, 소도구로만 배치된 밥상과 그릇과 음식에 카메라의 초점을 옮겨 클로즈업한 책”이라고 평했다. 신문은 특히 “이 책이 전해주는 ‘진실’의 하나는 우리가 고유의 전통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생활문화가 기껏해야 100년 전에 보편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임을 일깨웠다.

실제로 주 교수는 〈세계일보〉를 통해 “조선후기 그림 속에서 김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우리가 ‘조선적’이라고 믿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명제들 중 일부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계몽적 근대성의 표상”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서평자는 “‘상상 속의 조선’이 아닌, 풍속화에 담긴 도구들을 통해 저자 자신의 시각에 교정을 가져왔다고 밝혔다”며 특히 ‘그림읽기를 제대로 안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그림 자체를 사료의 일부가 아니라 깊이 있게 해독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말에 따옴표를 둘러쳤다.

일제시대의 한국관 골드러시를 다룬 《황금광 시대》 역시 소재의 특이함 때문인지 모든 신문들이 장문의 서평을 가한 책이다. 〈한국일보〉는 “1930년대를 일제의 병참기지로 만들던 참혹한 시기라고만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골드러시’ 이야기는 적잖은 호기심거리”라며 “게다가 황금 캐기 대열에 내로라 하는 문인

들까지 나섰다는 건 놀랄 일”이라고 새삼스러워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반도 전역에서 열풍 같이 일어난 골드러시의 실체, 희비가 엇갈린 인간 군상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추적함으로써 식민지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세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서평 후반에서 특히 광산부호로 성장한 계초 방응모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문을 빌려 “계초는 금광 사업으로 부호가 된 후 〈조선일보〉를 인수했고, 장학회를 만들어 백석, 김기림 등의 일본 유학비를 냈으며, 한용운을 위해 성북동의 ‘심우장’을 말년의 안식처로 내줬다”고 ‘선행’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최창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며 재산을 불려 갔지만 방응모는 벌 만큼 벌었을 때 전 재산을 기용여 비영리 사업에 힘썼다’고 비교했다”며 그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책에 대해선 “김유정의 〈금따는 콩밭〉, 채만식의 〈금의 정열〉, 이태준의 〈영월영감〉 등 당시 소설과 신문·잡지 기사는 물론 광업사 연구서까지 활용한 소장학자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집단간의 권력차? ‘섹스·시간·권력의 관계’ 다룬 책도

〈한국일보〉는 “일반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섞여 살기 싫다며 단지 사이에 철망이 섞인 담장을 치는 현실”을 들어 새삼 “2005년 서울의 풍경에는 그야말로 속물적인 자본주의의 터치가 두텁다”고 개탄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 신문은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드》는 이같은 집단갈등이 어떤 구조에서 발생하는지를 현장조사를 통해 미시적으로 파헤친 책”이라고 소개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영국의 한 소유 주민들간에 구역으로 나뉘어 서로 멸시하고 갈등하는 모습에 대해 “이런 갈등과 권력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의 응집욕구와 그 응집력에서 생겨난다”는 저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독일 사회학자)의 주장을 곁들

이기도 했다. 특히 “이들 모습에선 서로 얽혀 있는 집단 사이의 권력차이의 순수한 모습을 본다”는 저자의 말과 함께, “권력이 우세한 것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결집력과 통제력을 갖기 때문이며, 그런 점에서 경제적 분배의 불평등이 사회갈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절반의 진리”라는 본문 내용을 각별히 인용했다.

《자연의 선택, 지나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의 종족번식과 죽음, 시간의 관계를 ‘임신과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기원으로부터 풀어나온 독특한 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경향신문>은 특히 ‘섹스, 시간 그리고 권력(sex, time and power)’이란 주제에 대해 “첫 느낌으론 종잡을 수 없는 배열”이라며 “세 단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려면 500여 쪽에 이르는 문장의 끝자기를 지나야 하며, 이는 인류와 자연의 숨겨진 비밀 앞으로 나아가는 흥미로운 여행”이라고 호기심을 보였다. 외과의사인 저자 레너드 슬레인이 고고학과 인류학에 남다른 통찰력과 지식을 가진 외과의사임을 강조한 서평자는 “여성 혐오와 가부장제의 근원을 밝힌 《알파벳과 여신》이란 전작으로 유명세를 치른 그가, 전작을 시간상으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 확장한 작품이 이 책”이라고 규정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저자에 따르면 여성은 월경을 통해 알게 된 ‘시간’의 개념을 남자에게 가르쳤고, 남자는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지구상의 가장 무섭고도 지혜로운 사냥꾼이 되었다”며 책의 성진화론적 가설을 인용하며 ‘섹스, 시간, 권력’이란 주제어를 해석했다.

무려 1,000쪽에 달하는 《옥스퍼드 세계 영화사》에 대해 각 신문은 그 볼륨만큼이나 풍성하고 다양한 내용과 필진, 방대한 서술 영역을 칭찬해 마지않았다. <서울신문>은 ‘움직이는 환영을 창조기 위한 16세기 이래의 선구적 실험’을 들어 “영화는 한번의 ‘빅 뱅’으로 탄생한 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의 연속 속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임을 전제, “《옥스퍼드 세계 영화사》는 이처럼 열린 시각으로 세계 영화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고 의미를 두었다. 또 “색인 항목만 1만 개가 넘고, 백과사전적인 서술의 방대함이 독자를 압도하며, 전 세계 80여 명의 영화학자와 평론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한 점을 높이 샀다.

<경향신문>은 그들 필진이 “페미니즘, 정신분석, 인지주의 등 계파를 막론한 현대영화이론의 전문가들”임을 강조하며 “종래의 영화사 책들이 특정 학파의 이론을 중심으로 서술된 것에 비해 한 발 나아간 셈”이라고 서물로서 가치를 평가했다. 그러나 “이란,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영화까지 언급하면서도 1996년 집필된 타인지 가장 역동적인 영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한국 영화를 다루지 않은 점이 크게 아쉽다”고 토를 달았다. **한**

<출판저널> 편집부

<기타 신간 서평>

《붉은 중국의 공포 파룬궁》

저자는 ‘인간은 자신의 악하고 불완전한 부분을 부정하고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는 카를 융의 말을 인용, “중국 당국이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 파룬궁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경향신문>

《내 인생에 타협은 없다》

이 책의 특별함은 IBM의 창업자 토머스 J 왓슨을 영웅으로 그리지 않은 데 있다. 왓슨은 재능도 뛰어나지만 결점도 많은, 보통 사람일 뿐이다. 때문에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이에게 더욱 진실되게 다가온다. <한국일보>

《높을 헤매는 거대한 수레》

우리 문학에서 높이나 못을 소재로 한 것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높은 음울한 정서가 감도는 그늘지고 습한 곳이라는 관념이 과거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높의 치유능력에 주목한다. <국민일보>

《이미 시작된 20년 후》

미래학이란 현재의 사회적 흐름을 기반으로 길게는 100년, 짧게는 10년 이내 변화될 사회시스템 전반을 치밀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운 의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목만큼이나 의미심장하다. <문화일보>

《사막에서 사는 법》

강박한 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사회나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하여, 화해로 승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소설 속 주인공들은 ‘사막에서 사는 법 1’의 두 노인처럼 서로를 중요하면서도 어느 새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아일보>

《성의 미학》

에로틱 미술로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몸이란 주제를 택한 저자는 “서양미술에서 세상을 보는 눈은 남자의 시선이고, 에로틱 예술이 묘사한 대상도 굶주린 사내가 여성의 옷 너머로 애타게 보고 싶어하던 음부와 젖가슴, 벗은 몸 전체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

《푸른촌》

작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던 바로 다음날 형이 집행된 8명의 이야기를 6편의 중편소설로 재구성하고 있다. 역사의 질곡에도 끝내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치열한 삶을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현시킴으로써 처연한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한국일보>

《폭군들》

지은이는 폭군을 만들고 유지시킨 것은 국민이었다고 말한다. “폭군은 국민의 마음 속 깊이 내재한 두려움과 욕망을 몸소 실천하고 이를 표명하는 하나의 매개체 또는 예언자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세계일보>

《블루아메리카를 찾아서》

‘블루아메리카’를 찾아 나선 저자의 발길은 매년 미국을 향하는 관광객, 유학생, 연수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낯선 길을 따라가면서 미국의 신화, 미국에 대한 환상을 여지없이 깨트린다. <경향신문>